

토론문

비대면 시대의 한국어교육의 전망과 과제

이민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meanwoo@cufs.ac.kr

비대면 시대의 한국어교육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 년 간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화상 회의 시스템에서부터 AR과 VR, 메타버스까지 과거에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들이 속속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어교육 현장 또한 이 속에서 큰 변화를 겪으면서 본격적인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이 현장에 이용되면서 다양한 최신 기술들의 적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적절한 융합이 미래 교육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술들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진행하면서 대두된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편의상 온라인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한국어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온라인 접근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공간의 구애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온라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집단에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세종학당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온라인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온라인세종학당을 오프라인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교수학습 도구의 편의성, 사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 또한 걸림돌이 됩니다. 온라인 교수학습을 위해 지원되는 도구들을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면 교사나 학습자 모두 시작 시점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에 들어서기 어려워집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해 교사의 자질 강화 측면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 도구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온라인세종학당을 이용하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도구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적절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때 단순히 학습자의 기능적 성취만이 아닌 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의 본질적인 성장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교육의 내용과 질보다 새로운 기술과 도구의 적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온라인 한국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와 함께 교사와 학습자의 질적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